

설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다 같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사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
하게 하소서(시90:14-17)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지난 한해 당신의 은혜중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올 설명절을 맞아 온가족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하는 영적 지혜와 지식을 충만히 얻어 이 한해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찬 송-----444장(통일찬송가390장)-----다 같 이
기 도-----가족 중에서
말 씀 봉 독-----창세기28:10-15-----인 도 자
설 교 제 목-----임마누엘되신 하나님-----인 도 자

오늘 우리는 설명절을 맞이해서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오랜만에 만난 경우도 있고,멀리서 와서 함께한 분도 있습니다.
이시간에 오랜만에 만나고 멀리서도 왔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삶에 함께 하셨느냐는
것입니다.아무리 편하게 살고,여유있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나님은 의와 선의 하나님이
심으로 우리가 옳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함
께 하신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언제든지 옳고 선하게 살면 성령의 인도
하심을 통해,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자신은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사람이 등장합니다.바로 야곱이었습니다.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후에는 장자의 명분을 누릴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하란으로 향하여 도망하는 그의 신세는 딱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잤으니 말입니다.그는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그냥 노숙자처럼 길바닥에 누워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12절).

이는 I)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의식(意識)의 세계속에서나 무의식의 세계속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의 의식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 뜻대로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현실에서 뭐가 잘 안된다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꿈이라는 무의식의 세계속에서까지도 당신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늘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에서는 내뜻대로 안 되서 힘들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전 존재, 전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세계를 영적으로 잘 바라보면서 항상 영광의 길로 나가는 우리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고 하십니다. II)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현실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야곱에게도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가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이므로 신뢰가 되고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가 조금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를 복주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약속이 우리의 경험과 현실에 앞선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더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자신의 행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III)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꿈이 깨고나서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조부와의 약속, 아버지와의 언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면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만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땅에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기간 다 보내면 각자 흩어져서 자기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살 텐 데 우리에게 임마누엘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일,의지하는 일,느끼면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여호와이레,에벤에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온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이제 하나님께 우리와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며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맘먹은대로 잘 안되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심을 알게 아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찬 송-----359장(통일찬송가325장)-----다 같 이
축복과 비전나누기-----다 같 이

(집안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축복을 빌어주고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의 미래의 비전을 말하고 축복기도를 받습니다.)

폐 회-----주기도문-----다 같 이

설날을 잘 지내려면...

설(舊正)은 추석과 더불어 우리민족 고유의 큰 명절입니다.설이 되면,온가족 혹은 온 집안이 함께 모여 자녀들은 집안의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며 어른들은 덕담을 해주면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성도의 가정에서는 온가족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 집안이 모여 함께 모이는 기회는 많지 않으므로 명절기간에 소원(疏遠)했던 집안 사람들을 먼저 말씀실천의 의미에서 섬겨줌으로써 관계회복의 기회로 갖고 특히 어른들은 그저 덕담을 건 내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말씀의 몇구절을 택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특히 온가족이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체할 때 우리가족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 작은 정성을 담아 나누는 일도 함께 하면 더 뜻 깊을 것입니다.그러나 설명절에 성도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차례(茶禮)를 대신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온가족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온집안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명절에 특히 집안의 남자들도 음식을 같이 만들고 설거지도 함께 거들어주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더욱 즐거운 설명절이 될 것입니다.

